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MIDDLE EAST

중동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14~09/20

1. 호르무즈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발 해상운임 급등 및 공급망 차질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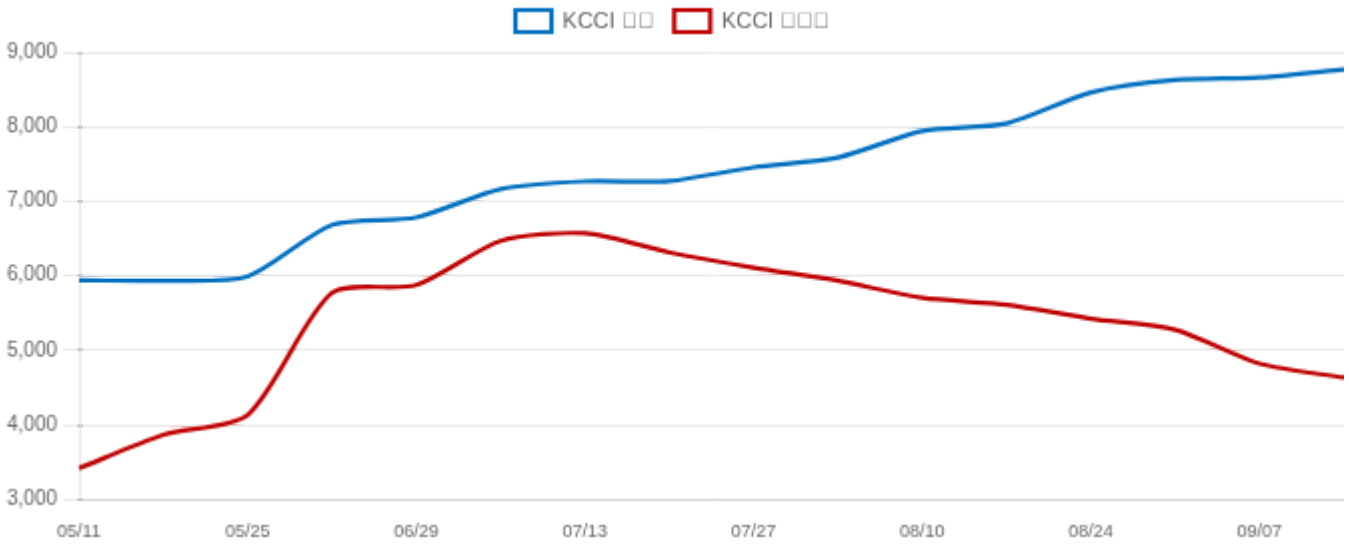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동 권역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로 해상 물류와 공급망에 직접적 충격이 집중됨. 이란의 선박 통제와 보복 조치가 맞물리며 걸프 지역행 컨테이너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요 선사들의 할증료 부과와 통항 회피가 잇따르며 중동발 공급망 차질이 본격화됨.

이와 같은 물류 대란은 중동 역내 교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을 심화시켜 수입 물가 상승과 재고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단기적으로는 대체 항로를 통한 우회 운송과 운임 급등이 불가피해 보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회복되지 않으면 중동 산유국의 수출 차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음.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중동	8,767 $/FEU	09/14	+1.3%	+9.0%
KCCI 지중해	4,632 $/FEU	09/14	-3.9%	-17.4%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9/14

호르무즈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발 해상운임 급등 및 공급망 차질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 통제와 보복 조치로 걸프 지역행 컨테이너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선사들이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통항을 포기함에 따라 중동발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있음.**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7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상 막히면서 걸프 지역 수입 화물의 현물 운임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록을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음. Xeneta 집계 기준 중국발 제다행 40피트 컨테이너 평균 현물 운임은 1만870달러, 코르 알 파칸행은 1만626달러를 기록하며 2월 말 대비 각각 256%, 479% 급등함. 컨테이너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중은 전체 통과 선박의 6%에 불과해 사실상 통항이 중단된 상태임.

운임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안전 우려로 인한 선박 우회와 제한된 대체 항만 처리 능력에 있음.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도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Maersk는 걸프행 컨테이너에 500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CMA CGM과 COSCO 선박 일부는 통과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킴. 우회 항만인 제다와 코르 알 파칸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운임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걸프 지역 수입 화주들은 제다와 코르 알 파칸을 경유하는 육상 연계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상 운송료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함.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 걸프 상부 시장에서는 지난해 이라크가 도입한 TIR 트럭 통관 시스템이 대안으로 부상함. 국제도로운송연맹(IRU)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이라크 노선에서 5000건의 TIR 카르네가 사용되었고, 폴란드발 아랍에미리트행 트럭 운송이 기존 24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육로 운송의 효율성이 입증됨.

이러한 운임 급등과 공급망 차질은 중동 지역 수입 물가 상승과 재고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특히 걸프 지역 내 소비재, 건설 자재, 산업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의 컨테이너선 통항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회 운송 비용 부담이 당분간 화주들에게 전가될 전망임.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컨테이너선 비중: 전체 통과 선박의 6% (약 100척 수준)
- 중국발 제다행 40피트 컨테이너 현물 운임: 1만870달러 (2월 말 대비 256% 급등)
- 중국발 코르 알 파칸행 40피트 컨테이너 현물 운임: 1만626달러 (2월 말 대비 479% 급등)
- Maersk, 걸프행 컨테이너에 500달러 할증료 부과
- 이라크 TIR 트럭 통관 시스템 도입으로 튀르키예~이라크 노선 5000건의 카르네 사용

전망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낮으며, 컨테이너선 통항 재개 시점도 불투명함. 따라서 걸프 지역행 해상운임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 육상 운송로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장기적으로는 중동발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물류 비용 상승이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화주 — 운임 급등과 운송 지연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재고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포워더 — 우회 항만 및 육상 연계 운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함.

항만·선사 — 우회 항만의 처리 능력 확충과 운송 네트워크 재편을 통해 새로운 물동량 흐름에 대응해야 함.

참고자료: The Loadstar, 호르무즈 봉쇄에 중동행 컨운임 사상 최고치 경신 (검색일: 2026-09-20)